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rerg: 미 근로자 실질 임금 2분기 연속 감소…물가상승 보다 낮아
- Bloomberg: 미국 연방 총부채, GDP 대비 100% 돌파
-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미 올해 3분기 GDP 성장율과 투자은행들 반응

[미국 금융]
- CNBC: 나스닥 2%대 급락…아마존·인텔 실적 충격에

[물류]
- WSJ: LA·롱비치 항만 파업 연기 합의할 듯

[오일]
- 미국·이란 외교 재개 시도에 국제유가 하락세

[미 중간 선거]
- Bloomberg: 중간선거로 2028년 미 대통령 누군지 힌트 가능해
- TheEconomist: 중간 선거, 민주당 탈환 가능성 높아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물류 업체들 연말 채용 직전까지 미뤄… 자동화·긱 워커로 대처
- Bloomberg: 기아, 중동 분쟁 발 원가 상승에 영업이익 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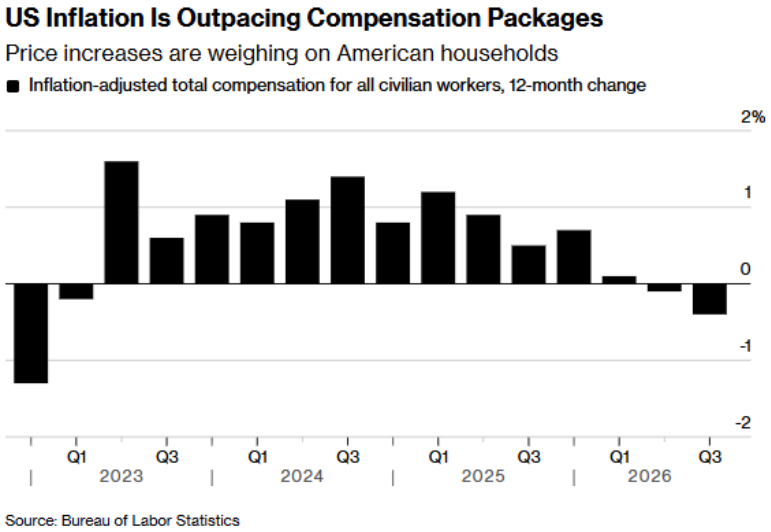
[KMI 공급망 브리핑]

[오늘의 금융 지표]
- 미 증시 지수,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Bloomberg: US Employment Costs Trail Inflation for Second Straight Quarter
미 근로자 실질 임금 2분기 연속 감소…물가상승 보다 낮아

- 미 노동비용 증가율이 2분기 연속 물가 상승률을 밑돌면서 미국 가계의 살림살이가 한층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 연방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물가 변동을 반영하기 전 고용비용지수(ECI)는 전년 동기 대비 3.4%, 전 분기 대비 0.8% 상승하는 데 그쳤다.
- 건설·숙박업 등 여러 분야에서 임금 상승세가 꺾인 가운데, 특히 서비스직 연간 임금 상승률은 2016년 이후 최저치로 물가상승보다 밑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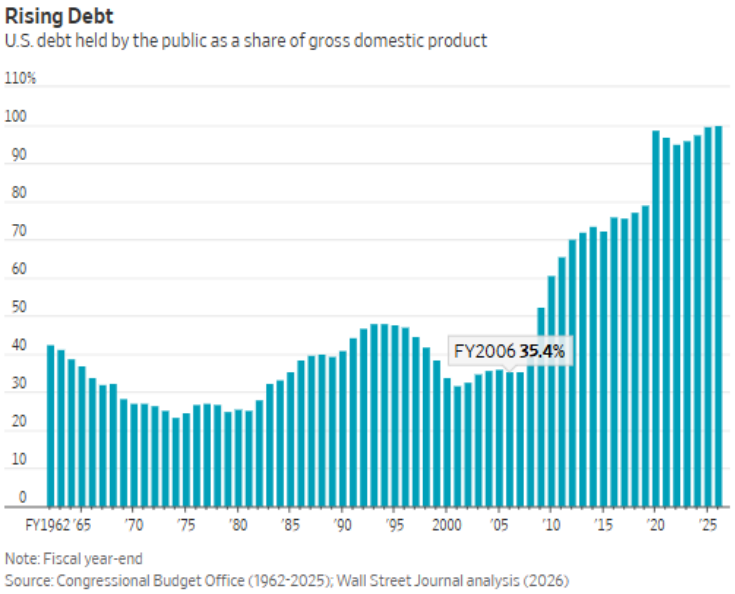


기사

Bloomberg: WSJ: Federal Debt Hits 100% of GDP
미국 연방 총부채, GDP 대비 100% 돌파

- 올해 9월 30일로 마감된 2026 회계연도 기준 미국의 국가 전체 부채가 GDP의 100%를 기록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미국 정부가 진 전체 부채는 총 32조 2천억 달러로 GDP 대비 100.03%에 달해, 전년도(99.4%)를 넘어섰다.
- 연간 재정 적자 역시 약 2조 달러에 육박해 GDP의 6.2%를 차지했다. 경제 위기가 아닌데도 대규모 적자가 계속 이어지는 이례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미 3분기 경제 성장률 분석
- 올해 3분기 미 경제 성장률 분석과 미 주요 투자은행들의 반응,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기사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미 3분기 경제 성장률 분석

- 올해 3분기 미 경제 성장률 분석과 미 주요 투자은행들의 반응,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기사

[미국 금융]

CNBC: Nasdaq falls more than 2% as investors rotate out of tech after Amazon, Intel earnings
나스닥 2%대 급락…아마존·인텔 실적 충격에

-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공지능 관련주에서 방어주로 자금이 이동하며 나스닥 지수가 2.5% 급락했다. 다우 지수는 0.7%, S&P500 지수는 1.5% 하락했다.
- 아마존은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밑돌고 잉여현금흐름이 마이너스 424억 달러를 기록해 주가가 2% 떨어졌다.
- 인텔은 PC 시장 둔화에 따른 어두운 실적 전망에 28% 폭락했다. 샌디스크 역시 호실적과 1 대 8 주식분할 발표에도 불구하고 10% 하락했다.

기사

[물류]

WSJ; Employers Near Deal to Delay Strike Threat at Los Angeles-Long Beach Ports
LA·롱비치 항만 파업 연기 합의할 듯

- 미국 최대 항만 관문인 LA 및 롱비치 항만의 사측이 항만 노조와 파업을 막도록 합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
- 태평양해운협회(PMA)는 250여 명의 항만 보안요원 노조와 오는 수요일까지 기존 노동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무리 중이라고 밝혔다.
- 사측은 보안요원 파업 발생 시 다른 항만 하역 노동자들까지 동조 파업에 나서며 항만 운영이 전면 중단될 것을 우려해 노사 간 협상 시한을 추가로 확보했다.

기사

[오일]

WSJ: Oil Prices Ease as U.S. Seeks to Renew Diplomacy With Iran

미국·이란 외교 재개 시도에 국제유가 하락세

- 미국 정부가 이란과의 평화 협상 재개를 추진하면서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중동 지역의 공급 차질 우려와 군사적 긴장 가능성이 남아 있어 유가 하락폭은 제한적이었다.
- 미국 JD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하에 이란 국가안보회의 서기에게 평화 협상 재개를 제안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 그러나 미국은 다음 주 선거 이후 이란을 상대로 단기적인 고강도 군사 작전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걸프 지역 아랍 우방국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12월물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0.4% 내린 114.88달러, 1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는 0.8% 내린 102.00달러로 거래를 어제 마쳤다.

기사

[미 중간 선거]

Bloomberg: Who Wants to Be US President in 2028? Pre-Midterm Moves Offer Clues
중간선거로 2028년 미 대통령 누군지 힌트 가능해

- 2026년 중간선거가 2028년 미 대선의 전초전으로 치러지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출마하지 않아 양당 모두 확실한 선두 없이 치열한 차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 민주당에서는 Kamala Harris 전 부통령과 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핵심 지역 유세로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Pete Buttigieg 전 교통부 장관은 전국을 돌며 표밭을 훑고 있다. Josh Shapiro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Andy Beshear 켄터키 주지사, Alexandria Ocasio-Cortez 하원의원도 각자의 지지 기반과 모금력을 앞세워 경쟁하고 있다.
- 공화당은 JD Vance 부통령이 가장 강력한 선두 주자로 경선 지역을 돌고 있으며 Marco Rubio 국무장관이 외교·안보 중책을 맡으며 보수층의 대안으로 거론된다. Ron DeSantis 플로리다 주지사와 Ted Cruz 텍사스주 상원의원도 보수 세력을 결집하며 차기 판도에 대비하고 있다.

기사

TheEconomist: Our forecast of the midterms' outcome
중간 선거, 민주당 탈환 가능성 높아

- 미 중간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민주당의 의회 탈환 가능성이 커졌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민주당은 95% 확률로 하원을 가져와 트럼프 행정부의 입법 독주를 저지할 전망이다.
- 상원 탈환 확률은 54%. 메인·미시간·오하이오 등에서 승리하며 과반인 50석 확보가 유력하다.
- 민주당이 양원을 모두 확보할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법관 임명과 핵심 국정 과제는 거센 차질을 빚게 된다.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The Holiday Hiring Rush Is Moving to the Eleventh Hour
물류 업체들 연말 채용 직전까지 미뤄… 자동화·긱 워커로 대처

- 불확실한 유통 경기 속에서 물류 업체들이 이번 홀리데이 쇼핑 시즌 임시직 채용 시점을 예년보다 대폭 미루고 있다.
- 기업들은 채용을 최대한 직전까지 미루기 위해 자동화 시스템, 단기 아르바이트(gig worker), 유연 근무제 등을 적극 활용 중이다. 소매판매 성장률은 지난해 3.1%에서 올해 4.2%로 확대될 전망이지만, 채용 양상은 갈리고 있다.
- 아마존이 30만 명 이상의 연말 인력을 채용할 계획인 반면, USPS는 계절 채용 규모를 약 1만 명 수준으로 대폭 축소했다.

기사

Bloomberg: Kia Shares Plunge as Cost Surge Linked to Iran War Hits Profit
기아, 중동 분쟁 발 원가 상승에 영업이익 타격

-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 지속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아의 수익성이 악화해 한국 주가가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 연료, 알루미늄, 구리 등 주요 원자재 비용이 크게 상승하면서 기아의 3분기 영업이익에서 약 6천억 원의 손실 요인이 발생했다.
- 기아는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고율의 판매 인센티브 정책을 내년까지 유지하는 한편, 대대적인 내부 원가 절감 조치를 통해 수익성 하락에 대응할 예정이다.

기사

[KMI 공급망 브리핑]

호르무즈 해협 위기 격화 속 국제 유가 약세 전환

-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3척이 기뢰와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영국 해군 해사무역기구(UKMTO)도 해협 인근 선박의 화재 발생을 독립적으로 확인했다.
- 이란 측은 지역 내 전투가 종료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했으며, 이란 제1부통령은 이번 봉쇄를 자국의 환승 허브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IRGC는 해협 상공에서 미국 MQ-1 드론 14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으나 미국은 이를 부인했다.
- 한편 흑해에서는 불가리아 해안 인근을 지나던 그리스 국적 컨테이너선이 해상 드론 3대에 피격되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승조원 18명은 전원 대피했다. 해운 물동량 지표인 발틱건화물운임지수(BDI)는 2,712포인트로 60포인트 상승했고, 미국 운임 지급 지수는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US 30	52,022.50	-320.1	-0.61%
US 500	7,612.00	-108.2	-1.40%
Dow Jones	52,018.18	-324.38	-0.62%
S&P 500	7,611.23	-109.16	-1.41%
Nasdaq	25,590.75	-593.97	-2.27%
S&P 500 VIX	19.52	+2.32	+13.49%
Dollar Index	101.85	-0.041	-0.04%

U.S. Treasurys

	COUPON (%)	PRICE CHG	YIELD (%)	YIELD CHG
30-Year Bond	5.125	-3/32	5.322	0.020
10-Year Note	4.625	-2/32	4.960	0.022
7-Year Note	4.875	2/32	4.852	-0.033
5-Year Note	4.75	-1/32	4.766	0.015
3-Year Note	4.875	0/32	4.702	0.018
2-Year Note	4.625	-22/32	4.635	0.033
1-Year Bill	0	0/32	4.391	0.014
6-Month Bill	0	0/32	4.280	-0.007
3-Month Bill	0	0/32	4.085	-0.012
1-Month Bill	0	0/32	3.971	0.006

미국 USD	유럽 EUR	일본 JPY	중국 CNY	유로/달러	달러인덱스
1,334.20	1,487.70	848.05	200.56	1.1174	102.03
-6.30 (0.47%)	-11.58 (0.77%)	-1.90 (0.22%)	-0.79 (0.39%)	+0.0021 (0.19%)	0.00 (0.00%)
10. 31. 00:22 ● 실시간	10. 31. 00:22 ● 실시간	10. 31. 00:22 ● 실시간	10. 31. 00:22 ● 실시간	10. 29.	10. 30. 11:13 ● 10분 지연

환전고시환율 | 국제시장환율

미국 USD

1
1 달러

대한민국 KRW

1,334.20
1,334.20 원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